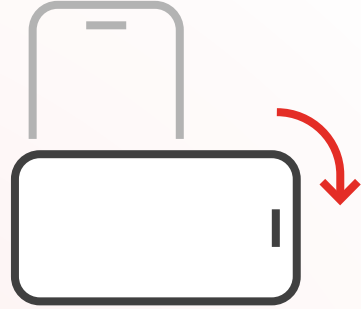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업

결과보고



이 보고서는 가로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가로로 돌려서 더 편하게 보세요!

CONTENTS



04

인도적지원 사업과
사업비

07

주요 위기별 지원

미얀마 지진

DRC 콩고 분쟁

국제 원조 삭감

14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업비

16

세이브더칠드런의 약속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업

세이브더칠드런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속에서도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인도적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중 하나가 인도적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적지원 유연기금(The Humanitarian Fund)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인도적지원 유연기금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30개 회원국이 함께 조성하며, 이 기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합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골든타임 내
긴급구호 진행

2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한
재난과 국가 지원

3

재난 발생 전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 지원

4

현지 파트너 기관들이
인도적지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강화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업비

-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업비 총액
- 2025년 상반기 인도적지원 유연기금 총액

579,397,538 달러
한화 약 785,663,060,972원

9.4%

54,696,040 달러
한화 약 74,167,830,240원

* 원화 환산은 2025년 6월 30일 기준 환율(1\$ = 1,356원)을 적용



2025년 상반기 인도적지원 유연기금 지원 내역

2025년 상반기에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분쟁, 기후위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 대표 위기 💰 지원 금액 👤 지원 인원

상반기 총 지원 금액
약 **3,351** 만 달러
한화 약 454억 3,873만 원

상반기 총 지원 인원
약 **618** 만 명
아동 약 319만 명 포함

MENAE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ASIA

아시아

WCA

서·중앙 아프리카

ESA

동·남아프리카

LAC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아 분쟁 및 강제이주
- 💰 약 2,109만 달러(한화 약 285억 9,243만 원)
- 👤 3,534,092명(아동 1,827,004명 포함)

아시아

- ⚠ 미얀마 지진/분쟁, 아프가니스탄 분쟁, 파키스탄 분쟁
- 💰 약 451만 달러(한화 약 61억 1,371만 원)
- 👤 524,488명(아동 251,680명 포함)

동·남아프리카

- ⚠ 에티오피아 가뭄/분쟁/난민/기아, 수단 분쟁, 소말리아 분쟁
- 💰 약 348만 달러(한화 약 47억 1,849만 원)
- 👤 2,014,419명(아동 1,040,861명 포함)

서·중앙 아프리카

- ⚠ 콩고민주공화국 분쟁, 부르키나파소 분쟁/난민, 코트디부아르 난민
- 💰 약 282만 달러(한화 약 38억 2,334만 원)
- 👤 52,799명(아동 36,580명 포함)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 ⚠ 아이티 분쟁
- 💰 약 118만 달러(한화 약 15억 9,824만 원)
- 👤 56,122명(아동 32,027명 포함)

SC Global Team(운영 지원비)

- 💰 약 44만 달러(한화 약 5억 9,252만 원)

※ 원화 환산은 2025년 6월 30일 기준 환율(1\$ = 1,356원)을 적용

기금 지원 TOP 10¹



지원 국가	발생 재난	지원 금액	지원 인원
팔레스타인	분쟁	약 1,138만 달러 (한화 약 154억 3,128만 원)	2,897,379명 (아동 1,402,123명 포함)
우크라이나	분쟁	약 540만 달러 (한화 약 73억 2,240만 원)	165,352명 (아동 130,339명 포함)
미얀마	복합위기	약 186만 달러 (한화 약 25억 2,216만 원)	1,373,246명 (아동 774,728명 포함)
시리아	강제이주	약 154만 달러 (한화 약 20억 8,824만 원)	63,110명 (아동 35,821명 포함)
콩고민주공화국	복합위기	약 133만 달러 (한화 약 18억 348만 원)	집계 중
아프가니스탄	복합위기	약 116만 달러 (한화 약 15억 7,296만 원)	630,331명 (아동 329,088명 포함)
루마니아	분쟁	약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 5,600만 원)	7,200명 (아동 3,450명 포함)
남수단	복합위기	약 84만 달러 (한화 약 11억 3,904만 원)	304,929명 (아동 149,605명 포함)
수단	분쟁, 난민	약 82만 달러 (한화 약 11억 1,192만 원)	2,119,377명 (아동 834,465명 포함)
에티오피아	복합위기	약 70만 달러 (한화 약 9억 4,920만 원)	1,635,613명 (아동 816,898명 포함)

1. 지원 금액 및 지원 인원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수치는 2025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업 결과보고(2026년 발행 예정)에서 확인 가능

※ 원화 환산은 2025년 6월 30일 기준 환율(1\$ = 1,356원)을 적용



미얀마 지진

지난 3월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13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3,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5,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70명 이상이 실종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300차례가 넘는 여진으로 가족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도로변이나 들판에 임시 텐트를 치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지진은 이미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던 미얀마의 피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분쟁과 기후위기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인도적지원을 필요로 하던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총 1,7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아동은 27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주택과 학교 피해도 심각합니다. 51,000채 이상의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고, 약 40,000채는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9만 명 인구가 밀집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거나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였습니다. 또한, 2,500개 이상의 학교가 피해를 입어 수천 명의 아동이 학습권을 박탈당했고, 일부 안전한 학교조차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어 지난 6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료분야 피해도 큼니다. 640개 이상의 의료 시설이 파괴되면서 의료 시스템 접근이 매우 어려워졌고, 혈액과 필수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 용품이 부족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응급 치료를 받기 힘들고 산모는 안전하게 출산할 수 없으며, 예방 접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식량 불안도 심화되었습니다. 농경지 370만 헥타르 이상이 지진의 영향을 받았으며, 교량과 도로가 파손되어 식량과 생필품 운송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식량, 식수, 거처,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진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며, 지진 발생 2시간 반 만에 100만 달러를 즉각 지원하고, 아동 34,000명을 포함한 총 11만 1,000명 이상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현금 지원
27,000명 이상 (6,000가구)



식수 제공
79,000명 이상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20,000명 이상



긴급물품 키트(담요, 매트, 모기장, 방수포 등) 배포
18,500개 이상



위생 키트(비누, 칫솔, 수건, 생리대, 세제 등) 배포
8,600개 이상



의료 서비스 제공
8,500명 이상



영양실조 검사 실시
5,000명 이상



영양실조 치료를 위한 영양소 파우치 제공
1,700명 이상 (생후 6개월~59개월 아동 대상)



학생 키트 배포
3,000개 이상

임시 대피소에서 뛰어노는 미얀마 아동 © Save the Children





학교에 다시 갈 날을 기다려요!

네이 민(Nay Min, 12세)

지진이 발생한 날, 순식간에 집이 무너지면서 제가 아끼던 책가방과 교복, 공책, 연필까지 모두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 학교 건물이 크게 손상돼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슬펐어요. 교실 책상에 앉아 선생님 말씀을 듣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알게 됐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저와 같이 지진으로 피해 입은 아이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습 키트를 나눠줬어요. 그 안에는 책가방, 공책, 연필, 볼펜, 지우개, 필통, 티셔츠가 들어 있었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은 것 같아 정말 기뻐고,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언젠가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훗날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지진 때문에 모든 게 멈춘 듯했지만, 세이브더칠드런 덕분에 저는 다시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진: 학습 키트를 받고 임시 거주지로 가고 있는 네이 민
© Save the Children

조금씩 건강을 되찾는 손녀를 보며 희망을 느껴요.

도 투(Daw Thu, 66세)

저는 딸과 손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만달레이(Mandalay) 지역에 살고 있어요. 우리 막내 손녀, 모 레이(Moe Lay)는 이제 14개월이에요. 지진이 일어난 날, 저는 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의 비명이 들렸어요. 지진으로 집 건물이 무너지면서 화장실 물탱크가 딸에게 떨어졌고, 딸은 다리와 자궁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했어요.

딸이 병원에 있는 동안, 모유 수유가 어려워 손녀에게 충분한 영양을 챙겨주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세이브더칠드런이 저희 임시 거주지를 찾아와 손녀의 팔 둘레를 재고 영양 상태를 확인했어요. 손녀는 종종 영양실조였고, 영양 보충식을 받았어요. 저는 손녀에게 보충식을 올바르게 먹일 수 있도록 지도와 영유아 수유 상담을 받았어요. 또한, 모기장과 매트를 지원받아 바닥에서 생활하는 동안 비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사진: 임시 거주지에서 손녀와 함께 있는 도 투
© Save the Children Myanmar



콩고민주공화국 분쟁

콩고민주공화국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의 중심지로, 수년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겹치며 수백만 명의 아동과 가족이 위기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5년 초, 고마(Goma)와 인근을 포함한 동부 지역에서 무장단체와 정부군 간 충돌이 격화되며 지난 10년 중 가장 심각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충돌로 대규모 이주와 필수 서비스의 붕괴가 이어지고, 아동보호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전국적으로 약 700만 명이 집을 떠났으며, 2025년 1월 이후 동부 지역에서 5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이동했으며, 이중 최소 26만 명은 아동이었습니다. 한편, 고마와 주변 지역의 실향민 캠프 대부분이 운영 중단과 귀환 조치로 폐쇄되면서 수십만 명이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귀환 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여, 불발탄, 높은 성폭력 위험,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부족, 깨끗한 물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에 도착한 사이먼과 가족 © Esther Mbabazi / Save the Children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의 총 인구 1억 1,800만 명으로 약 2,120만 명이 인도적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 중 1,150만 명은 아동입니다. 특히, 아동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피난과 귀환 과정에서 부모와 떨어져 착취, 학대,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 성폭력 사례가 최대 5배까지 급증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세계에서 아동이 무장 단체에 징집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번 폭력 격화는 위험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인도적지원 유연기금 40만 달러를 포함해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콩고민주공화국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말렌과 함께 영양 치료식 복용 방법을 배우는 베니타 © Patou Dombi / Save the Children



심각한 식량 불안

2,540만 명 (아동 1,320만 명 포함)

세이브더칠드런 대응

보건·영양센터 및 진료소를 운영하여 영양실조 아동 치료 및 검진 지원



성폭력·젠더 기반 폭력 사례

10만 건

무장 단체 연루 아동

400명

세이브더칠드런 대응

성폭력 생존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의료·법률 연계 지원, 무장 단체 연루 아동 상담 및 임시 보호소 제공, 지역사회 보호 강화 활동 수행



폐쇄된 학교

775개

교육 중단 아동

37만 **5,000**명

세이브더칠드런 대응

학교 및 교실 재건, 학습 자료 배포, 교사 훈련과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원격 학습 기회 제공



의료 서비스 부족,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세이브더칠드런 대응

병원과 이동식 진료소 운영,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 제공, 위생 키트 및 생리용품 배포, 질병 예방과 건강 교육 진행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며 새 삶을 시작해요.

사이먼(Simon, 10세)



저는 부모님이랑 두 명의 동생과 지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집 근처에서 무장 단체를 피해 살아야 했고, 때로는 집 밖 덩불 속에 숨기도 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저희 가족은 결국 콩고민주공화국을 떠나 우간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우간다의 임시 캠프에 도착했을 때 세이브더칠드런이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새 신발과 옷, 담요가 들어 있는 구급 키트를 받고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식사와 간식도 챙겨줬어요. 무엇보다 아동친화공간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면서 분쟁의 무서운 기억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임시 캠프에서 2주를 지낸 뒤, 난민 캠프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도 세이브더칠드런 덕분에 건강을 잘 지키고 아동친화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공부도 하고 있어요. 아빠와 엄마는 지원을 받아 작은 사업을 시작하며, 저희 가족은 조금씩 새 삶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진: 임시 캠프 내 아동친화공간에서 친구와 노는 사이먼
© Esther Mbabazi / Save the Children

치료 덕분에 아이가 웃음을 되찾았어요!

베니타(Benita, 40세)

저는 아홉 아이의 엄마예요. 2021년, 두 아이를 병으로 잃었고 지난해에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자 된 뒤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발일을 하지만, 일이 없는 날에는 굶고 잠들 때도 많았어요. 수입이 불안정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충분히 챙겨주기 어려웠어요.

올해 초 7개월 된 막내 말렌(Marlene)이 갑자기 고열과 설사로 쓰러졌을 때 정말 두려웠어요.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세이브더칠드런이 지원하는 보건센터로 데려갔고, 아이는 중증 급성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영양 치료식과 약을 먹고 나니 기운을 되찾았고, 지금은 언니들과 함께 잘 웃고 놀아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집에서도 위생을 지킬 수 있도록 물, 위생용품, 그리고 양동이와 비누가 담긴 위생 키트도 줬어요.

덕분에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사진: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뮤악(MUAC) 밴드를 들고 있는 말렌
© Patou Dombi / Save the Children





국제 원조 삭감

줄어드는 국제 원조, 커져가는 아동 위기

전 세계 아동 11명 중 1명은 필수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위태로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올해 초 국제 원조 삭감으로 세이브더칠드런 활동의 25%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 프로그램 126개가 중단되어 약 1,030만 명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만 약 660만 명의 아동을 포함하여 1,150만 명 대상의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건 및 영양, 교육 및 보호 분야에서의 타격이 큼니다.

국제 원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닌 아동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원조 삭감으로 생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긴급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콩고민주공화국, 팔레스타인, 수단을 포함한 36개국에 약 821만 달러를 전달해, 각국의 상황과 시급성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국제 원조 삭감 대응 지원국 TOP 5

지원 국가	지원 금액(달러)
콩고민주공화국	930,185
팔레스타인	688,146
수단	585,246
예멘	563,933
남수단	512,042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115개국에서 매년 1억 명이 넘는 아동을 지원하며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 분명한 것은,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아동과 함께하며, 후원자님과 함께라면 아이들이 보호받고 내일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건·영양

- 479개의 의료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 10만 6,000건 이상의 출산이 전문 의료 지원 없이 이루어지면서 영유아와 산모의 사망률이 급증할 것입니다.
- 11만 명의 아동이 치료식을 제공받지 못해 심각한 영양실조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교육·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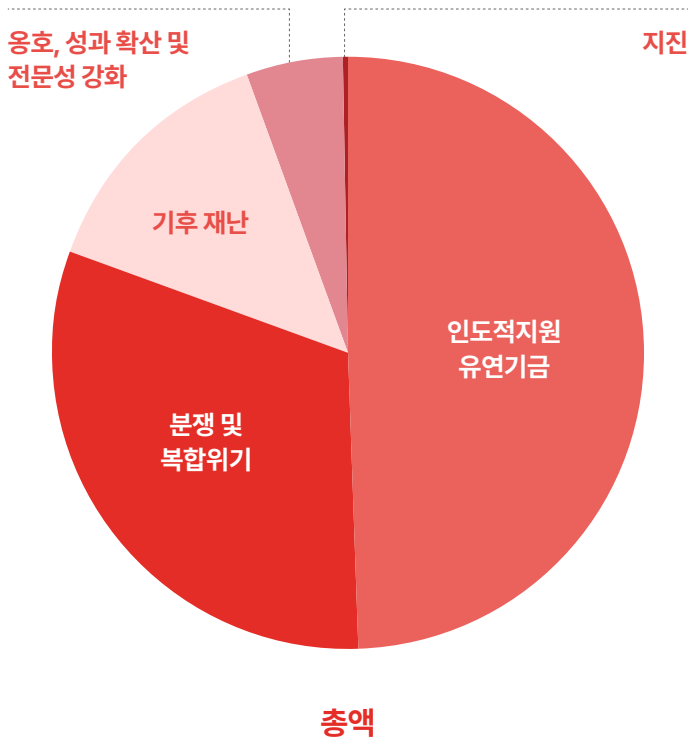
- 180만 명이 넘는 아동이 학습 기회를 잃었으며, 아동친화공간의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으면서 12만 명이 보호와 배움의 공간을 잃었습니다.
- 13개국에서 아동보호 및 정신건강 지원이 중단되며 최소 7,800명 이상의 아동이 개별 사례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인도적지원 사업

전 세계 아동과 가족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속에서 인도적지원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사회 전체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도 이러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2025년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적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 인도적지원 사업 영역별 예산 계획



● 인도적지원 유연기금¹

세부 사업 재난·재해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에 확보하는 자금

대상 국가 미얀마, 부르키나파소,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에티오피아 등

8,325,144,428원

● 분쟁 및 복합위기

세부 사업 분쟁 피해 아동 및 여성 대상 폭력 예방, 조혼 및 기타 아동보호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아동친화공간 구축 및 개보수, 아동 대상 심리사회적 지원, 영유아 및 임산부/수유부 대상 영양 지원 제공

대상 국가 부르키나파소, 방글라데시, 레바논 등

5,232,929,661원

1. 인도적지원 유연기금의 일부는 비지정 기금(fully flexible)으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일부는 특정국가 재난 대응에 지정(earmarked)되어 사용

● 기후 재난

세부 사업 가뭄, 폭염, 홍수 등 재난 피해 아동 및 지역사회 대상 아동보호 사례 관리, 아동친화공간 구축 및 개보수, 심리사회적 지원, 생계 지원, 건강 증진 캠페인, 재난 대비 물품 지원 제공

대상 국가 에티오피아, 피지 등

2,359,823,915원

● 옹호, 성과 확산 및 전문성 강화

세부 사업 인도적지원 옹호와 성과 확산 및 전문성 강화, 장기적인 인도적지원 사업 기획

870,499,893원

● 지진

세부 사업 지진 피해 지역 임시 정착촌 조성, 이재민과 아동 대상 생계 및 심리사회적지원 제공

대상 국가 튀르키예

23,740,906원

2025년 상반기 인도적지원 유연기금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총 1,950,000달러 (한화 28억 547만 원¹)를 기여했으며, 하반기에도 유연기금을 활용하여 아동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결정일	지원 국가	발생 재난	지원 금액(달러)	지원 금액(원)
2025-02-27	유연기금 내 비지정 기금	-	1,100,000	1,609,850,000
2025-03-20	미얀마		100,000	143,120,000
	부르키나파소	국제 원조 삭감	100,000	143,120,000
	콩고민주공화국		100,000	143,120,000
2025-03-31	미얀마	지진	150,000	214,680,000
2025-05-23	아프가니스탄	분쟁/난민	100,000	136,530,000
2025-06-24	팔레스타인	분쟁	200,000	276,700,000
2025-06-24	에티오피아	가뭄	100,000	138,350,000
합계			1,950,000	2,805,470,000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전하는
인도적지원 분야의 생각과 방향
『인지고래』 시리즈 보러가기 ➔



1. 실제 송금 당시 환율을 적용



세이브더칠드런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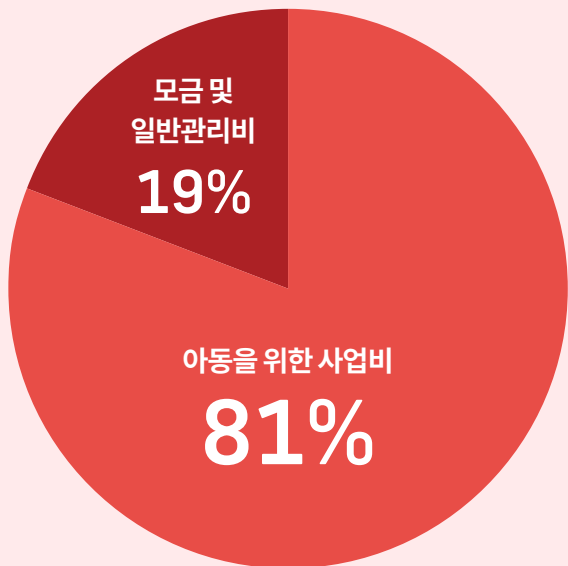
1919년 설립 이래, 세이브더칠드런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장 소외된 아동을 위해 한 걸음 앞서 걸어왔습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언제나 아이들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후원금의 81%를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나머지 19%를 모금 및 일반관리비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결과보고서, 사업보고회,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후원자님과 함께 만든 변화의 이야기를 더욱 투명하고 상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아동을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100년이 넘는 여정에 늘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총 후원금 지출



합계
114,228,581,714^원

세이브더칠드런의 투명성 약속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금 사용에 관한 기부금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글로벌 4대 회계법인인 EY한영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고, 이사회에서 연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후원금 사용 내용은 연차보고서,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대표전화 02-6900-4400 | 홈페이지 www.sc.or.kr